

배 가격 폭락 쇼크...역장 무너지는 나주 농가

수확량 80% 못판 채 썩어 들어가

냉동 저장고마저 턱없이 부족 한숨만  
농민 자살 속수무예 요구야적시위 추진

대표적인 우리나라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 배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지 배가 흥수출되면서 가격이 생산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폭락한 데다 출하조절을 위한 냉동창고도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이 밭을 통동굴리고 있다. 특히 전례없는 풍년으로 수입을 기대했던 농민이 배값 폭락을 비판,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농민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도는 배 수매를 요구하는 야적시위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16일 오전 10시 나주시 왕곡면 배과수원. 이곳에서 배 과수원을 20년째 하고 있는 K씨(53)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수북히 쌓인 배 상자를 망연 자살 바라보고 있었다. K씨는 지난해 2만3천140㎡의 과수원에서 배 3천 상자(한 상자당 15kg)를 수확해 6천만원을 손에 쥐었지만 올해는 절반도 건지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K씨는 "풍년 농사 지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수확해야 하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배 출하량이 넘쳐나면서 공판장에 내놓아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다"며 "현재까지 배 출하량이 20%에 불과한 데, 갈수록 배값은 떨어지고 있다. 배 농사 20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현재 15kg 한 상자당 배

가격은 2만원(특품 평균가격)선. 이는 지난해 추석 때 4만~4만5천원에 출하했던 것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이다.

농민들의 또 다른 걱정은 전체 물량의 70%가 소화되는 추석이 지났음에도 아직 수확량의 80%가 남아있고, 남은 배를 저장할 냉동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주지역의 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8% 가량이며 연간 수확량은 7만다. 올해 수확량은 8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냉동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3만으로 이날 현재까지 출하를 마친 1만6천을 뺀 나머지 3만4천을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 이사회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 대책회의를 연 뒤 다음주 나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배 야적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나주 배 원예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도 배 값 폭락에 따른 생산비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수매를 해 준 적이 있다"며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남은 물량이라도 수매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과수원을 임대해 배 농사를 짓던 P씨(67·나주시 왕곡면)씨가 가격 폭락으로 재값을 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종형기자 golee@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20년째 배를 재배해온 한 농민이 16일 나주시 왕곡면 자신의 배 과수원 앞에서 수북히 쌓여 있는 배 상자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  
해남서 고교생 2명 사망

16일 새벽 3시 50분께 해남군 북평면 주유소 앞 도로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하던 해남 모 고교 3학년 정모(19)군과 함께 타고 있던 박모(19)군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의 앞 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있고, 전신주도 세로막으로 끊어져 있었다"면서 "고압 전선이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어 한전의 협조로 이를 제거한 뒤 구조해 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이 정군의 친척 A씨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

을 도운 뒤 A씨의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인 정군이 평소 당구장에 자주 와 일을 돕거나 놀다 가는 일이 많았다"면서 "사고 당일 당구장 의자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들이 내 호주머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빼내 차량을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정군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7604) 김종두



발 안마기로 목 마사지 '금물'

머리카락 검겨 119 출동

20대 여성이 발 안마기로 목 마사지를 받다가 머리카락이 감기는 바람에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시 북구 임동 H아파트에 사는 이모(여·27)씨는 16일 오전 집 안방에서 발 안마기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목이 빠근함을 느낀 이씨는 발 안마기로 목을 갖다

뒀다가 안마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머리카락이 안마기의 롤러에 감겨버렸다. 음썩달걀 못하던 이씨는 가족의 신고로 20분만에 구급했지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안마기에 머리카락이 감기면서 목까지 다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진도 갈매기섬 학살'

유해 발굴 나선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진도군 갈매기섬(갈명도)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해를 발굴을 추진한다.

16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진도군 의신면 접도 수품항에서 개토제를 가진 뒤 조만간 본격적인 유해 발굴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개토제에는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과 진도군수, 유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토제가 끝난 뒤에는 갈매기섬 현장 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도 갈매기섬 학살사건=한국전쟁 직후 부산으로 퇴각하려던 해남경찰이 좌익운동 경력자들로 구성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 300여 명을 무인도인 갈매기섬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시민단체 간부 비위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공인인 시민단체 간부의 비위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순천시민단체 사무국장 A씨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 간부인 A씨는 순천지역 디지털카메라 동호회장을 맡으면서 순천시가 동호회에 행사 사진 촬영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2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같은 사실을 동료인 B씨가 인터넷에 수차례 공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순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A씨의 20만원 횡령사실을 공개한 혐의로 검명을 무인도인 갈매기섬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동부취재본부=지평원기자 light64@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contact information.

목욕탕 남녀 절도범 기묘한 인연?

○일면식도 없는 남녀 절도범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한 목욕탕의 남녀 탈의실을 각각 털었다가 같은 날 검거되는 기묘한 인연을 연출.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학교 중퇴생인 M(17)군과 단식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K(여·23)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목욕탕 남녀 탈의실에서 각각 현금 125만원과 130만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 수사결과 전과 3범인 M군은 탈의실 옷장을 부수고 현금을 훔쳤고, 초범인 K씨는 문이 열려있는 옷장을 보고 우발적으로 지갑을 훔쳐내 절도 수범만은 대조적.

○광산서 관계자는 "공범의 소행으로 보았으나 막상 조사해보니 두 사람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며 "검거된 것도 같은 날인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다"며 실소.

/김필성기자 kps@

'엽기 남편' 아내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들 앞 쇠줄 묶어 감금

가출이 잦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에 쇠줄까지 감아 방안에 감금한 엽기적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아내를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김모(47)씨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서 아내 S(4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음날인 15일 오후 4시까지 24시간 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목에 길이 4.5m짜리 쇠줄을 감은 뒤 거실 장롱다리에

묶어 자물쇠까지 채워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쇠줄에 묶인 뒤인 채 밤을 지새운 S씨는 감시중이던 남편이 잠든 틈을 타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S씨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내가 자주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S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집에서 피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S씨는 현재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에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광산소방서 월곡119안전센터 김용훈 반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목에 쇠줄이 감긴 S씨는 탈진상태였고, 자녀 3명이 나란히 S씨의 주변에 앉아있었다"며 "가정폭력 현장에 많이 출동했지만, 이처럼 충격적인 장면은 처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현주기자 ahj@

Advertisement for '물온수 보일러 매트!!' (Hot Water Heater Mat!!) featuring product benefits, contact information for 신일종합의료매트, and pricing details.

Advertisement for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Newly built house complex early start of mass sal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house, contact information for '자연IN', and details about the development.